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간의 관계*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 Individual and Parents' Characteristics and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 사 이 혜 련
교 수 최 보 가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Lecturer : Lee, Hae Ryoum

Professor : Choi, Bo-Ga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 individual and parents' characteristics and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Subjects were 200 4 and 5-year-old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terview tasks were used as research instruments used to measure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parents'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by questionnaires based on several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mothers' attitude styl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recent research showing that parents emotional socialization may be important for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주제어(Key Words): 정서이해(emotional understanding)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Corresponding Author: Lee Hae-Ryou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1370 Sankyuk Dong, Puk-ku Daegu, 702-701, Korea Tel: 82-16-9229-6025 E-mail: 980913@hanmail.net

* 본 논문은 2004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I. 서론

정서는 출생과 더불어 개인의 행동에 작용하며, 일생동안 행동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이 느끼는 기분, 감정 및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내면과 상황적 요구에 맞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인성형성이나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Goleman, 1995).

그러나 정서는 그 개념과 속성을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밝히기가 쉽지 않고, 적절한 연구설계를 수행하기 어려우며(박찬옥, 1990), 주관적인 심리상태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다른 주제에 비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동들의 정서발달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아동들이 기본 정서인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을 언제쯤 이해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유아들도 기본정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며 유아의 정서발달에 개인적 특성인 성, 연령과 기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Denham & Couchoud, 1990)으로 보고되었다.

일생 중 영유아기에 겪게 되는 정서 경험은 그 개인이 성장한 이후의 정서반응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발달의 토대를 형성한다(Goleman, 1995). 유아기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은 가족이며 가족 중에서도 유아에게 가장 영향력있고 유아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주체는 바로 부모이다.

부모는 자신의 정서 표현을 통해서 유아에게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하고, 자녀와의 정서관련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에게 정서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부모는 유아의 정서에 반응함으로써 유아들이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정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고(Gamer, Robertson, & Smith, 1997),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아동의 정서이해를 방해한다(Denham & Grout, 1993; Denham & Brown, 1994; Gamer 등, 1994). 또한 부모가 아동의 정서표현을 수용하고 적

절하게 반응하는 가족의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한다(Denham & Brown, 1994; Fabes, Eisenberg, & Miller, 1988).

이러한 정서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서를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고, 정서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한다(Morris & Reilly, 1987). 정서경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개인의 적응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민경환 · 김지형 · 윤서빈 · 장승민, 2000) 자신의 정서 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서조절이란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혹은 정서표현을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시켜 주어진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해야 한다는 원칙인 정서조절 규칙을 따른다(Ekman & Friesen, 1975). 인간의 행동 발달은 타고난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Riegal, 1973) 정서조절 행동 역시 타고난 특성과 사회화의 두 측면이 서로 영향을 줄 것이다.

정서조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정서조절의 성차를 다루어왔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남아는 여아보다 분노나 공격성을 표현하는 성향이 더 강하며 여아는 남아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Fabes & Eisenberg, 1992). 또한 타고난 고유한 특성인 기질은 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는 정서조절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영향을 줄 수도 있다(Gamer & Power, 1996).

이러한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가족적 특성도 정서조절 발달에 중요하다. 중요한 사회화대행자인 부모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은 장려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정서 조절을 학습시킨다(Denham, 1993). 또 정서의 사회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정서 표현성(Denham & Grout, 1993; Denham & Brown, 1994; Harberstadt, 1986; Gamer 등, 1994), 자녀정서에 대한 부모의 수용태도(Denham & Brown, 1994; Fabes 등, 1988;), 부모의 양육행동(Eisenberg 등, 1992) 등이 유아의 정서이해

와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특성으로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유아의 정서발달에 있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Gamer 등, 1994)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화 대행자로서 아버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버지가 유아의 정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최근 자녀수가 감소하고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유아의 정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이지은, 1997; 최정윤, 1994)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비교문화연구(Joshi & Maclean, 1994)에서도 밝혀졌듯이 각 나라의 문화적인 관습에 따라 유아의 정서발달에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서구사회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그대로 우리사회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개인적 특성과 부모 특성에 따라 유아들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의 개인 특성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가?

- 1)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가?
- 2)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가?
- 3) 유아의 기질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부모 특성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가?

- 1)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가?
- 2)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가?

- 3)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정서수용태도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 각각 100명과 그 부모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만 3세아는 언어이해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104(52.0)
	여	96(48.0)
연령	만 4세	100(50.0)
	만 5세	100(50.0)
형제·자매수 (아동포함)	1명	118(59.0)
	2명	89(34.5)
	3명 이상	13(6.5)
아버지 연령	30세이하	6(3.0)
	31~35세	89(44.5)
	36~40세	77(41.0)
	41세 이상	23(11.5)
어머니 연령	30세이하	39(19.5)
	31~35세	96(61.5)
	36~40세	32(16.0)
	41세 이상	6(3.0)
아버지의 직업	무직	2(1.0)
	단순 노무직 및 생산직	11(5.5)
	판매 서비스직	20(10.0)
	사무직	83(41.5)
	관리직	33(16.5)
	전문직 기타	16(8.0)
어머니의 직업	주부	158(79.0)
	단순 노무직 및 생산직	2(1.0)
	판매 서비스직	11(5.5)
	사무직	10(5.0)
	관리직	0(0.0)
	전문직 기타	11(5.5)
전체		200(100.0)

능력이 부족하여 면담에서 제시한 과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이혜련, 최보가, 2002)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전문대졸이상이 80%이상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유아의 정서이해 척도

본 연구에서는 기본정서인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에 대한 유아의 자기정서이해와 타인정서이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정카드와 정서상황을 나타내는 이야기 20가지에 대한 그림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유아가 표정카드를 보고 표정에 적절한 정서유형을 아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정서인식 과제를 실시하고, 정서인식이 가능한 유아에 한하여 정서이해 과제와 정서조절 과제를 실시하였다.

먼저 정서인식은 Denham(1986), Cassidy 등(1992)을 기초로 4가지 표정카드를 제시하고 카드에 나타난 정서를 적절하게 명명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명명과제와 정서유형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적과제를 실시하였다. 명명과제 후 틀린 정서유형에 대해서는 정답을 알려주고 난 후 지적과제를 실시하여 4가지 정서유형을 적절하게 지적하는 유아에 한해서 정서이해과제를 실시하였다.

먼저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Gamer 등, 1994)를 기초로 4가지 정서 각각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씩 선정하여 총 8가지 이야기의 그림카드를 이용하였다. 8가지 이야기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4가지 기본정서 각각을 주된 정서로 나타내는 이야기(예, 기쁨: 생일파티를 하는 상황)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아와 여아를 비슷하게 분포하였고, 각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표정한 얼굴로 처리하였다. 유아에게 각 상황의 내용과 그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카드를 함께 제시하였고, 한가지씩 상황을 제시한 후 각 이야기에 해당하는 표정 카드를 지적하게 하였다. 유아의 반응은 유아가 정확한 정서를

지적한 경우 2점을, 동일유형의 정서를 지적한 경우(예: 정답인 슬픔에 대해 분노를 지적한 경우) 1점, 틀린 정서를 지적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Denham, 1986; Denham & Couchoud, 1990)에서 사용한 면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Denham과 Couchoud(1990)는 기본 정서 4가지 중 두 가지 정서가 나타날 수 있는 모호한 상황을 각각 두 가지씩 설정하여 총 12가지 상황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기쁨-슬픔의 한가지 상황인 어머니와 떨어져서 어린이집(유치원)에 가는 것에 대해 어떤 유아는 기뻐할 것이고, 또 어떤 유아는 어머니와 떨어지기 싫어서 슬퍼할 수도 있다. 이 척도는 유아의 타인조망수용능력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먼저 부모용 질문지편에 12가지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일상적인 유아의 반응을 체크하게 하고, 유아면담시에는 어머니가 체크한 유아의 반응과 상반된 표정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야기 주인공이 느끼는 정서를 답하게 하였다(예: 어머니는 유아가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한 경우 유아에게 어린이집에 가면서 슬퍼하는 그림을 보여준다). 유아가 이야기속 주인공이 느낀 정서를 정확하게 답한 경우 1점, 틀린 정서를 답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유아의 자기 정서이해는 각 정서유형별로 기쁨 이해, 슬픔이해, 분노 이해, 두려움 이해의 점수를 산출하였고, 타인 정서이해는 타인정서이해과제 12가지의 점수를 합하여 사용하였다.

2) 유아의 정서조절 척도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Zeman & Garber(1996)이 정서표출규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면담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면담은 긍정적 정서인 기쁨과 부정적 정서인 분노, 슬픔, 두려움에 대해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지만 사회적 상황에서 그 표현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들을 각각 2가지씩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분노의 정서는 "나와 친구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하는 경기에 한 팀으로 참여했는데 나는 정말 이기고 싶다. 이길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친구가 실수를

하여 우리 팀이 지고 말았다. 나는 정말 화가 났다”의 상황을 선정하였다. 각 이야기에서 주가 되는 정서유형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Zeman & Garber, 1996) 이야기마지막에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주된 정서유형을 제시하여 유아가 느끼는 주된 정서를 분명하게 해주었다.

면담시에는 유아에게 일정한 순서없이 무작위로 이야기를 한가지씩 들려주었는데, 실험자가 이야기와 이야기내용을 담은 그림을 함께 제시한 후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그대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표정 그림에서 답을 고르게 하였다. 정서 표현을 조절하는 경우 1점, 자신이 느낀 정서를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하여 각 정서유형마다 정서조절 점수를 산출하였고, 유아의 전체적인 정서조절 점수는 8가지 이야기의 총점으로 사용하였다.

3)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 특성 측정도구

(1)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Thomas와 Chess(1977)의 유아기질 척도(PTQ: Parent and teacher Temperament Questionnaire for children 3-7 years of age)를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한 천희영(1993)과 우수경(2002)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적응성(5문항), 정서성(3문항), 활동성(4문항), 반응성(7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적응성, 정서성, 활동성, 반응성이 각각 .84, .64, .71, .73이었다.

(2) 부모의 정서 표현성

부모의 정서 표현성은 Harberstadt(1986)가 개발한 FEQ(Family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연구대상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신의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계수는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이 .77,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은 .73이었다.

(3) 유아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수용태도

유아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aami(1989)가 개발한 PACES(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의 연령 및 기타 특성에 적합하도록 본 연구자가 번안한 후 일부문항을 수정·보완(예; 만화책을 그림책으로, 학교를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ACES는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정서표현행동에 대한 부모의 수용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본 연구에서는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의 기본정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호기심과 혐오감 문항을 제외한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4점 Likert척도로서 1점은 엄격·통제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4점은 매우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Cronbach α 계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65, .80이었다.

(4)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배기조(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행동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애정-거부 요인(12문항)과 통제-허용 요인(8문항)의 2요인에 대한 20문항을 연구에 이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통제적임을 의미한다. 애정-거부 요인과 통제-허용 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90, .75와 .89, .74이며 전체 Cronbach α 계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85,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Maccoby와 Martin(1983)이 제시한 모델에 입각하여 하위변인인 애정성과 통제성의 점수를 기준으로 권위적 유형(애정성도 높고 통제성도 높은 집단), 허용적 유형(애정성은 높고 통제성은 낮은 집단), 독재적 유형(애정성은 낮고 통제성은 높은 집단), 방임적 유형(애정성도 낮고 통제성도 낮은 집단)의 4집단으로 나누었다.

3. 자료수집

본 조사에 앞서 부모용 질문지와 교사용 질문지의 문항 이해도, 유아와의 면담시 소요되는 시간, 면담에 응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 척도의 신뢰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3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4세와 5세 각 20명씩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는 대구·경북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4, 5세 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다. 먼저 유아편에 부모용 질문지를 미리 보내어 회수된 유아에 한해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내에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를 소개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가족상황, 친구관계, 선생님, 좋아하는 것 등에 관해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유아가 편안한 상태가 된 듯하면 본 면담에 들어갔다. 면담은 유아의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 정서조절 순으로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그리고 평균을 산출하고,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 특성에 따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개인 특성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

유아의 개인 및 부모 특성,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 Wilks's Lamda값이 .77로서 주효과($F=6.26,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정서이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조절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슬픔 조절

<표 2> 유아의 개인 및 부모 특성,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변 인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개 인 특성(기질)	반 응 성	200	3.83	.53	정서 이해	기쁨이해	200	3.99	.16
	적 응 성	200	3.57	.71		슬픔이해	200	3.61	.58
	활 동 성	200	3.37	.71		분노이해	200	2.99	.71
	정 서 성	200	3.55	.56		두려움이해	200	3.40	.77
						타인정서이해	200	8.72	1.90
부 모 특성(부)	애정적양육행동	200	3.68	.58	정서 조절	기쁨조절	200	.23	.45
	통제적양육행동	200	3.48	.53		슬픔조절	200	.73	.73
	정서표현성	200	3.30	.36		분노조절	200	.95	.82
	정서수용태도	200	2.82	.39		두려움조절	200	.01	.29
부 모 특성(모)	애정적양육행동	200	3.95	.49					
	통제적양육행동	200	3.73	.46					
	정서표현성	200	3.54	.32					
	정서수용태도	200	2.80	.44					

〈표 3〉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변 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정서 이해	기쁨이해	.01	1	.01	1.96
	슬픔이해	.01	1	.01	.00
	분노이해	.01	1	.01	.09
	두려움이해	.01	1	.01	.06
	타인정서이해	.01	1	.01	.00
정서 조절	기쁨조절	.23	1	.23	1.12
	슬픔조절	2.92	1	2.92	5.53*
	분노조절	16.02	1	16.02	27.25*
	두려움조절	.01	1	.01	.65

*p<.05

〈표 4〉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남(n=104)		여(n=9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조절	슬픔조절	.85	.83	.60	.59
	분노조절	.67	.73	1.24	.80

(F = 5.53, p<.05)과 분노 조절(F=27.2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bar{X} =.85)가 여아(\bar{X} =.60)보다 슬픔을 더 잘 조절하고, 여아(\bar{X} =1.24)는 남아(\bar{X} =.67)보다 분노를 보다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와 여아 모두 슬픔 조절 점수가 매우 낮아 전반적으로 슬픔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s Lamda값이 .92로서 주효과(F=1.82,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아의 반응성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변 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정서 이해	기쁨이해	.00	1	.00	.34
	슬픔이해	.40	1	.40	1.21
	분노이해	.38	1	.38	.75
	두려움이해	1.29	1	1.29	2.19
	타인정서이해	26.69	1	26.69	7.61*
정서 조절	기쁨조절	.78	1	.78	3.89
	슬픔조절	1.52	1	1.52	2.85
	분노조절	6.58	1	6.58	10.35*
	두려움조절	.01	1	.01	.29

*p<.05

3) 유아의 기질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

유아의 기질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질의 하위 요인별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유아의 기질 하위 요인 중 적응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s Lamda값이 .97로서 주효과(F=.5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의 하위변인 중 반응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s Lamda값이 .90로서 주효과(F=2.24,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반응성에 따라 타인정서이해(F=7.61, p<.05)와 분노조절(F=10.35,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반응성에 따른 타인정서이해와 분노조절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반응성이 높은 집단(\bar{X} =9.05)이 반응성이 낮은 집단(\bar{X} =8.31)보다 타인정서를 더 잘 이해하고, 유아의 반응성이 높은 집단(\bar{X} =1.11)이 반응성이 낮은 집단(\bar{X} =.74)보다 분노를 보다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유아의 반응성에 따른 타인정서이해와 분노조절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유아의 반응성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타인정서 이해	높은 집단	110	9.05	1.81
	낮은 집단	90	8.31	1.94
분노조절	높은 집단	110	1.11	.82
	낮은 집단	90	.74	.77

유아의 기질의 하위 요인 중 활동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s Lamda값이 .95로서 주효과($F=1.0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질의 하위 요인 중 정서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s Lamda값이 .98로서 주효과($F=.29,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부모 특성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

1)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인 애정성과 통제성에 대하여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각각 4집단으로 나누었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s Lamda값이 .84로서 주효과($F=1.2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s Lamda값이 .68로서 주효과($F=2.78, p<.05$)

〈표 7〉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변 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지급	F	
정서 이해	기쁨이해	.11	3	.01	1.56
	슬픔이해	.32	3	.01	.14
	분노이해	1.16	3	.38	.76
	두려움이해	3.03	3	1.01	1.72
	타인정서이해	94.45	3	31.48	9.85*
정서 조절	기쁨조절	3.24	3	1.08	5.62*
	슬픔조절	13.15	3	4.38	9.11*
	분노조절	9.08	3	3.02	4.81*
	두려움조절	.18	3	.01	.74

* $p<.05$

〈표 8〉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타인정서이해 사후검증

어머니 양육행동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권위적(애정성-상, 통제성-상)	53	9.43	1.73	a
허용적(애정성-상, 통제성-하)	47	9.34	1.66	a
독재적(애정성-하, 통제성-상)	56	8.20	1.83	b
방임적(애정성-하, 통제성-하)	44	7.84	1.93	b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인별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유아의 타인정서이해($F=9.85, P<.05$)와 기쁨조절($F=5.62, P<.05$), 슬픔조절($F=9.11, P<.05$), 분노조절($F=4.81,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타인정서이해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타인정서이해는 어머니의 애정성이 높은 집단과 애정성이 낮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의 애정성이 높은 집단이 어머니의 애정성이 낮은 집단보다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쁨조절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기쁨조절은

〈표 9〉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기쁨 조절 사후검증

어머니 양육행동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권위적(애정성-상, 통제성-상)	53	.19	.39	a
허용적(애정성-상, 통제성-하)	47	.45	.58	b
독재적(애정성-하, 통제성-상)	56	.11	.31	a
방임적(애정성-하, 통제성-하)	44	.18	.45	a

〈표 10〉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슬픔조절 사후검증

어머니 양육행동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권위적(애정성-상, 통제성-상)	53	.91	.77	a
허용적(애정성-상, 통제성-하)	47	1.06	.70	a
독재적(애정성-하, 통제성-상)	56	.46	.66	b
방임적(애정성-하, 통제성-하)	44	.50	.63	b

어머니의 애정성은 높고 통제성이 낮은 집단과 나머지 집단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의 애정성이 높고 통제성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기쁨을 보다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집단 모두 유아의 기쁨 조절 점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쁨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슬픔조절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슬픔조절은 어머니의 애정성은 높은 집단과 어머니의 애정성이 낮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의 애정성이 높은 집단이 어머니의 애정성이 낮은 집단보다 슬픔을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분노조절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분노조절은 어머니의 애정성은 높고 통제성이 집단과 애정성은 낮고 통제성이 높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의 애정성은 높고 통제성이 낮은 집단이 어머니의 애정성은 낮고 통제성이 높은 집단보다 분노를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분노조절 사후검증

어머니 양육행동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권위적(애정성-상, 통제성-상)	53	1.02	.82	ab
허용적(애정성-상, 통제성-하)	47	1.26	.79	a
독재적(애정성-하, 통제성-상)	56	.68	.72	b
방임적(애정성-하, 통제성-하)	44	.86	.85	ab

2)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정서표현성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s Lamda값이 .97로서 주효과 ($F=48,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s Lamda값이 .87로서 주효과 ($F=3.0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인별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에 따라 유아의 두려움이해 ($F=6.22, p<.05$), 타인 정서이해 ($F=21.72, p<.05$), 슬픔조절 ($F=4.63, p<.05$), 분노조절 ($F=8.74,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에 따른 두려움이해, 타인정서이해, 슬픔조절, 분노조절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이 높은 집단 ($\bar{X}=3.53$)이 낮은 집단 ($\bar{X}=3.26$)보다 유아의 두려움 이해를 더 잘하고, 어머니의 정서 표

〈표 1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변 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정서 이해	기쁨이해	.01	1	.01	1.96
	슬픔이해	.33	1	.33	1.00
	분노이해	.25	1	.25	.49
	두려움이해	3.59	1	3.59	6.22*
	타인정서이해	71.25	1	71.25	21.72*
정서 조절	기쁨조절	.62	1	.62	3.09
	슬픔조절	2.45	1	2.45	4.63*
	분노조절	5.60	1	5.60	8.74*
	두려움조절	.01	1	.01	.03

*p<.05

〈표 13〉 어머니 정서표현성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정서 이해	두려움 이해	높은 집단	104	3.53	.68
		낮은 집단	96	3.26	.84
	타인정서 이해	높은 집단	104	9.29	1.74
		낮은 집단	96	8.09	1.88
정서 조절	슬픔조절	높은 집단	104	.84	.75
		낮은 집단	96	.61	.70
	분노조절	높은 집단	104	1.11	.77
		낮은 집단	96	.77	.83

현성이 높은 집단($\bar{X}=9.29$)이 낮은 집단($\bar{X}=8.09$)보다 유아가 타인정서이해를 더 잘 하며,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이 높은 집단($\bar{X}=8.4$)이 낮은 집단($\bar{X}=.61$)보다 슬픔조절을 더 잘하며,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이 높은 집단($\bar{X}=1.11$)이 낮은 집단($\bar{X}=.77$)보다 분노조절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정서수용태도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

부모의 정서수용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정서수용태도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아버지의 정서수용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정

〈표 14〉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변 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정서 이해	기쁨이해	.01	1	.01	1.81
	슬픔이해	1.12	1	1.12	3.44
	분노이해	.40	1	.40	.79
	두려움이해	2.88	1	2.88	4.95*
	타인정서이해	47.04	1	47.04	13.82*
정서 조절	기쁨조절	1.80	1	1.80	9.14*
	슬픔조절	5.78	1	5.78	11.26*
	분노조절	18.60	1	18.60	32.37*
	두려움조절	.01	1	.01	.24

*p<.05

서수용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s Lamda값이 .93으로서 주효과($F=1.4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s Lamda값이 .81로서 주효과($F=4.79,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에 있어서 유아의 슬픔이해($F=5.78, p<.05$)와 두려움이해($F=4.95, p<.05$), 타인정서이해($F=13.82, P<.05$), 기쁨조절($F=9.14, p<.05$), 슬픔조절($F=11.26, p<.05$), 분노조절($F=32.37,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가 높은 집단($\bar{X}=3.68$)이 낮은 집단($\bar{X}=6.45$)보다 슬픔이해를 더 잘하고,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가 높은 집단($\bar{X}=3.52$)이 낮은 집단($\bar{X}=3.28$)보다 두려움조절을 더 잘하며,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가 높은 집단($\bar{X}=9.20$)이 낮은 집단($\bar{X}=8.23$)보다 타인정서이

<표15> 어머니정서수용태도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어머니 정서수용태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정서이해	슬픔이해	높은 집단	116	3.68	.49
		낮은 집단	84	6.45	.82
	두려움이해	높은 집단	116	3.52	.66
		낮은 집단	84	3.28	.85
	타인 정서이해	높은 집단	116	9.20	1.62
		낮은 집단	84	8.23	2.04
정서조절	기쁨조절	높은 집단	116	.32	.53
		낮은 집단	84	.18	.34
	슬픔조절	높은 집단	116	.90	.73
		낮은 집단	84	.56	.70
	분노조절	높은 집단	116	1.25	.74
		낮은 집단	84	.64	.77

해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가 높은 집단($\bar{X}=.32$)이 낮은 집단($\bar{X}=.18$)보다 기쁨조절을 더 잘하고,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가 높은 집단($\bar{X}=.90$)이 낮은 집단($\bar{X}=.56$)보다 슬픔조절을 더 잘하며,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가 높은 집단($\bar{X}=1.25$)이 낮은 집단($\bar{X}=.64$)보다 분노조절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유아의 성별에 따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정서조절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분노의 표현을 더 잘 조절하고 남이는 여아보다 슬픔의 표현을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조절에 있어 성차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Dosser, Balswick, & Halverson, 1983)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부모들이 아동의 정서적 행동을 사회화할 때 남아와 여아에게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여아들에게는 남아들보다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사회화하고,

남아들에게는 '슬픔의 표현을 승인하지 않고 여아들에게는 분노의 표현을 승인하지 않는 사회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상 연령을 4세와 5세로 한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배기조, 2001; 이해련, 최보가, 2000; Denham & Couchoud, 1990)에서 유아의 정서능력에 있어서 3세아와 4, 5세아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들은 발달에 있어서 월령 차이가 크므로 본 연구에서 4세와 5세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월령차가 크지 않은 아동들이 표집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정서능력에 있어서 진정한 연령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월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유아의 기질에 따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반응성에 따라서만 유아의 타인정서이해와 분노조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반응성이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포함한 정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우수경, 2002)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정서성이나 정서적 강도가 유아의 정서이해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Eisenberg & Fabes, 1994; Roberts & Strayer, 1996)과는 상반되는 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서 정서성의 항목들이 문항수가 적고(3문항) 유아의 정서적 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없으므로 이러한 연구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기질의 하위변인 중 반응성에 따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기질적으로 더 반응적인 유아들은 주변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부모의 사회화 과정에 더 적절하게 반응하므로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더 잘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유아의 개인 특성에 따른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차이는 유아의 개인 특성과 주양육자의 특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유

아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 주양육자는 각 유아의 독특한 특성을 잘 알고 유아의 기질이나 특성에 조화되는 양육행동이나 사회화 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부모의 특성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어머니의 정서수용태도에 따라서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우수경, 2002), 부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적 표현이나 낮은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Gottman & Katz, 1989)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유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통제나 제재보다는 애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나 주양육자들이 유아들과 상호작용할 때 충분한 애정을 쏟는 것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집단의 유아들이 두려움과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고, 슬픔과 분노를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자녀가 타인의 정서반응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고 보고한 연구들(Cummings 등, 1981)이나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유아의 정서조절(Denham, 1986)과 어머니의 정서를 이해하고 어머니의 정서에 대처하는 능력(Denham & Grout, 1991; Denham 등, 1994)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 과도 부분적으로 맥락이 같은 결과이다.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은 아동들에게 긍정적 정서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에도 그 표현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모델

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가족내에서 부정적 정서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된 아동들은 부정적 정서의 표현이 수용가능하고 적절한 것으로 학습할 수도 있고(Harberstadt & Fox, 1990), 부정적 정서표현이 빈번한 가정에서는 정서에 대한 대화자체가 더 적을 것이므로(Dunn & Brown, 1994) 아동들의 정서에 관한 학습 기회가 더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정서발달을 위해 가족내에서 특히 주양육자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출하고 유아가 정서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집단의 유아들이 두려움과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고, 기쁨과 슬픔, 분노를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이 아동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Denham & Grout, 1992; Eisenberg 등, 1996)과 맥을 같이 한다.

Dix, Reinhond, 그리고 Zanvaro(1990)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나친 통제나 억압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도록 가르치게 되어 이것은 결국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불안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들이 수용적으로 반응하면 자녀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각성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서와 그에 따른 행동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부모의 메시지나 그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도 더 뛰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와 그에 따른 행동을 조절하는데 더 적절한 전략들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에 의해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때 수용적으로 반응해 줌으로써 자녀들의 괴로움이 경감되도록 도울 수 있다(Fabes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특성보다는 어머니의 특

성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과 교육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다 많이 하고 있으며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이병래, 1996). 또한,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은 전업주부이며 아버지들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부모가 맞벌이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특성과 유아의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민경환, 김지현, 윤서빈, 장승민(2000). 부정적 정서 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정서종류와 개인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16.

박찬옥(1990). 아동의 정서인지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4(2), 37-64.

배기조(2001). 취학전 아동의 개인 및 가족적 특성이 마음의 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수경(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지은(1997).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련, 최보가(2002). 학령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 수용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최희영(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34-48.

최정윤(1994).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enham, S. A. (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1), 194-201.

Denham, S. A. & Couchoud, E. A. (1990). Young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Child Study Journal*, 20(3), 193-202.

Denham, S. A. & Grout, L. (1993). Socialization of emotion: Pathway to preschoolers'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7, 205-227.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Dix, T., Reinhold, D. P., & Zambarano, R. J. (1990). Mothers' judgements in moments of anger. *Merrill-Palmer Quarterly*, 36, 465-486.

Dosser, D. A., Balswick, J. O., & Halverson, C. R., Jr. (1983). Situational contex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375-387.

Dunn, J. & Brown, J. R.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137.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 Palmer Quarterly*, 40, 138-156.

Ekman, P. & Friesen, W. (1975). *Unmasking the Fac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Fabes, R. A. & Eisenberg, M.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1), 116-128.

Fabes, R. A., Eisenberg, M., & Miller, P. (1988). Mothers' attitudes toward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al responsiveness. Paper

-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hiladelphia.
- Garner, P. W. & Power, T.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4)*, 1406-1419.
- Garner, P. W., Jones, D. C.,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2)*, 622-637.
- Gold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73-381.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Halberstadt, A. G. & Fox, N. A. (1990). Mothers' and their children's expressiveness and emotionality.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Human Development, Richmond, VA.
- Joshi, M. S. & MacLean, M. (1994). Indian and English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65(5)*, 1472-1384.
- Morris, W. A. & Reilly, N. P. (1987). Toward the self-regulation of mood: Theory and research. *Motivation and emotion, 11*, 215-249.
- Riegel, K. F. (1973). Dialectic operations: The final period of cognitive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6*, 346-370.
- Roberts, W. & Strayer, J. (1996).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2)*, 449-470.
- Saarni, C. (1989).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PACES). Rohnert Park, CA: Sonoma State University(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7 301).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3)*, 957-973.

(2004년 10월 18일 접수, 2005년 1월 10일 채택)